



둘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자녀를 통해 부모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때 당시 전쟁은 창이나 활이 주무기였습니다. 만약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떨어지면 그 장수는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식을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든든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사의 수종의 화살과 같다는 말은 젊은 시절에 낳은 자식이 그 부모가 노쇠하였을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화살과 같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화살은 화살을 쏜 사람이 어떻게 쏘는지에 따라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운 자녀는 화살통에 꽂힌 화살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은 자녀는 부모의 가슴에 꽂힌 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부모는 자녀를 통해 인생의 노년에 축복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세워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 송 ..... 428장 ..... 다 같이

1.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2. 내 영혼에 노래있으니 주 찬양 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3. 내 영혼에 봄날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4. 내 영혼에 희락이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 (후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취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을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3  
가족과 함께 드리는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 추석 가정예배 순서

인도 : 가족 중에서

목상기도 ..... 인도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가 ..... 559장 ..... 다 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 도 ..... 가족 중

성경봉독 ..... 시편 127편 1절-5절, 새번역 ..... 다 같이

1.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2.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3.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태 안에 들어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4.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5.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 씬 ..... 믿음의 가정 ..... 인도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그 때 당시 가장 화려한 집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집은 화려함과 웅장함뿐만 아니라 지식과 명예와 엄청난 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근 각처의 다른 나라에서 솔로몬의 집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런 그가 오늘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에서 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본 구절에서 집은 가정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집에 살았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가정을 세우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2가지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태 안에 들어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본 구절에서 자식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업은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물려받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자식은 가정과 가문을 이어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고백합니다. 상급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뜻합니다. 따라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으사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호와와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으사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 세상의 유형자산을 물려주기에 앞서, 천국 무형자산, 믿음을 먼저 물려줘야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